장마 후 무더위… 콩 세균병 '주의'

고온다습환 환경에서 심하게 발생, 번지는 속도 매우 빨라

발생시 바로 방제해 확산 막아야… 평소 재배지 관리 중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콩 세균병 발생이 심해지므로, 농가에서는 재배지 관리에 특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콩 불마름병, 들불병 등의 세균병은 장마가 길어져 덥고 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며, 일단 발생하면 번지는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 발생이 확인되면 바로 방제해 확산을 막아야 하며, 평소에도 재배지를 깨끗이 관리해 병 발생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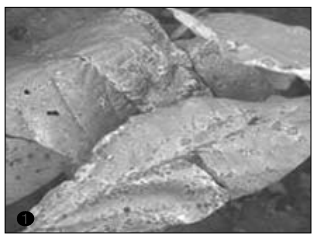
콩에 많이 발생하는 세균병의 특징과 방제 방법을 소개한다.

불마름병 감염 초기에는 잎에 조그만 점무늬가 나타난다. 병이 진전되면서 병 무늬가 차츰 커지고 담갈색으로 바뀌면서 주위가 노랗게 변한다. 들불병에 걸리면 잎에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갈색 괴사반점(조직의 일부가 죽어서 생기는 무늬)이 나타나고 병반 주위에 넓은 황색 띠가 생긴다.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식물체가 연약해지고, 이미 생긴 병 무늬들이 합쳐지면서 잎이 찢어지고 낙엽이 빨라진다. 잎이 줄어들면서 광합성량도 부족해 종자 크기와 생산량이 감소한다.

세균병은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높은 7~8월에 많이 발생하므로, 지난해에 병이 발생했던 논밭이나 오랫동안 병에 약한 품종을 재배한 곳에서는 미리 약을 뿌려 병 발생을 줄이도록 한다. 등록된 약제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솔린산 등이 있다.

농가에서 약제를 사용할 때는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작물별로 등록된 제초제와 살균제, 살충제를 비롯해 잠정등록 작물보호제와 관련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❶불마름병 병징 ❷들불병 병징

비가 내리거나 이슬에 잎이 젖으면 병원균인 세균이 주변으로 빠르게 번져 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농작업을 피해야 한다. 또한, 평소에도 콩 재배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상습 발생지에서는 병원균에 감염될 수 있는 콩과 작물 재배를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들불병 상습 발생지에는 담배, 가지, 동부 등의 재배를 피해야 하고, 불마름병 상습 발생지에서는 옥수수, 수수 등을 3년 이상 돌려짓기하면 발병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노태환 과장은 "장마기 전·후 습하고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콩 세균병 발병비율이 높아지므로 철저한 예방과 조기 방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콩 농사를 짓고 있는 L씨는 "지난해 비가 많이 와서 콩 재배 농가에 불마름병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올해는 병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미리 약제를 뿌리는 등 방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19일 전주시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소방정책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LX공사 김정렬 사장(오른쪽)과 소방청 신열우 청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트윈 기반 소방 플랫폼 구축

LX, 소방청과 스마트 소방정책 구현 MOU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와 소방청(청장 신열우)이 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 소방정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LX공사 김정렬 사장과 소방청 신열우 청장은 7월19일 LX공사 본사에서 효율적인 화재 진압과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플랫폼 개발 등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디지털트윈은 현실세계와 같은 가상세계에 만드는 디지털 쌍둥이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다.

이로써 두 기관은 소방관의 안전과 신속한 출동을 위해 공간정보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개발·활용 지원, 소방 공간정보의 국가 통합관리 위한 컨설팅, 소방 출동로 개선을 위한 지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스마트한 소방 플랫폼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열우 소방청장도 "최근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던 대원들의 희생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LX와 협력해 소방 안전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역통계 개발 우선 통계 대중화 앞장"

김대호 신임 호남통계청장

김대호 제7대 호남지방통계청장이 19일 취임해 호남·제주권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대호(56) 호남청장은 한양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통계청 산업통계과장, 경제총조사과장, 조사기획과장 등 통계청 주요 핵심분야를 두루 역임한 경제통계분야 전문가이다.

취임식을 생략하고 바로 업무 파악에 들어간 김대호 신임 청장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조사환경에서 정확한 현장조사로 신뢰받는 국가통계 생산과 호남·제주권 특성에 맞는 지역통계 개발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호남지방통계청을 지역통계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통계 대중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호남지방통계청 직원들에게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여름 약초' 더위지기·도라지茶로 건강하게

더위지기, 해열에 큰 효과 · 도라지,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여름철 체력이 떨어지는 현상과 만성 피로감을 덜어주면서 호흡기 건강에 이로운 약용작물로 '더위지기'와 '도라지'를 추천하고, 간단히 차로 즐기는 방법을 소개했다.

여름철에는 덥고 습한 환경 탓에 평소보다 땀 배출이 늘어나고, 몸 구석구석 열이 쌓이기 마련이다. 이럴 때 약초를 활용하면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위지기(약초명 한인진)는 국화과의 낙엽반관목 식물로 애기비위쑥으로 불리는 쑥류의 하나이다. 여름의 절정인 7~8월 사이에 수확하는 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년 중 가장 뜨거운 시기를 버텨낸다.

성질은 서늘하며 맛은 쓴 편이다. 해열작용으로 몸의 습기와 열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 또한, 줄기와 잎에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이 있어 소염이나 이뇨 작용제로도 쓰인다.

차(茶)로 이용할 때는 물 1리터(L)에 말린 더위지기 15g 정도를 넣고 달인 뒤, 따뜻하게 마시면 좋다. 쓴맛이 강하다면 꿀을 약간 넣는다.

❶더위지기 ❷도라지

도라지(약초명 길경)는 초롱꽃과의 여러해살이 식물로, 약초이자 채소로도 이용되는 친숙한 식물이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쓴맛을 내지만 감기 예방, 비염 등 호흡기 질환 개선에 효과가 있고 폐를 맑게 해주어 목구멍 부위를 편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 시설 등 실내외 온도 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차(茶)로 이용할 때는 물 1리터(L)에 도라지 50g 정도를 넣고 달인 뒤, 따뜻하게 마신다. 쓴맛이 불편하면 역시 꿀을 첨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지치고 불안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친숙한 약용식물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약초차를 즐길 때는 각자 체질과 몸 상태에 맞게 적정 농도를 잘 맞춰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올 최고 '우리술 주인공'은?

농식품부,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발표… '풍정사계 춘' 대통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올해 최고의 우리술을 선발했다.

우리술 품평회는 농식품부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주관으로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가공인 주류 품평회이다.

올해 품평회에는 ▲탁주(막걸리),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등 5개 부문에 총 234개 제품이 출품되었다.

선정 과정은 국산농산물 사용비율, 술품질인증 취득실적, 국내 육성품목 및 발효제 사용실적 등의 서류평가와 주류 전문가의 관능평가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된 국민심사위원단의 구매의향 평가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최종 15개 제품(5개 부문별 대상, 최우수, 우수)을 선정하고, 부문별 1위 제품 중 품질관리,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대통령상이 최종 결정된다.

올해 5개 부문 234제품에 대한 심사 결과 대통령상(1점), 대상(4점), 최우수상(5점), 우수상(5점)이 선정되었다.

대통령상에는 (농)(유)화양의 약·청주 '풍정사계 춘'이 선정됐고, 대상으로, 탁주부문은 한강주조의 '나루생막걸리', 과실주 부문은 수도산와이너리의 '산머루크라테스위트', 증류주 부문은 죽향도가의 '죽향41', 기타주류 부문은 두레양조의 '두레양브랜디'가 선정되었다.

올해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 농산물 및 국내 육성품목과 발효제를 활용한 제품이 다수 선정되어, 우리술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임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상을 차지한 '풍정사계 춘'은 청주지역의 쌀(품종 진수미)과 찹쌀(품종 백옥찰, 동진찰)에 자가제조 향온곡(누룩)을 사용하여 첨가물 없이 빚은 제품으로 온도·위생관리 등 품질관리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대상인 '나루생막걸리'는 서울의 경복궁쌀을, '산머루크라테스위트'는 김천의 산머루를, '죽향41'은 담양의 유기농쌀과 벌꿀을, '두레양브랜디'는 천안의 거봉포도를 원료로 사용하였다.

최종 선발된 제품(15점)에 대해서는 상금 및 온?오프라인 등 판로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19일에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서 상패와 함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상금으로는 대통령상(1점) 1000만원,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4점) 각 500만원, 최우수상(aT사장상, 5점) 각 300만원, 우수상(aT사장상, 5점) 각 100만원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8월 온라인을 통한 판촉전, 9월 바이어 초청 시음 상담회, 수상작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 언론홍보, 전통주갤러리 전시·시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윤상기자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 중기 지불능력 반영해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4차 대유행이 시작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코로나 피해 규모에 이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중소기업의 취업자수는 정상 회복을 못하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심의 과정에서 영세기업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밖에 있는 구직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리스크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지만,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 농어촌공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이소열)은 19일 세계인의 축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공구 사업현장을 방문해 '2021 찾아가는 현장 청렴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방문인원을 최소화하였고 이소열 단장이 안전 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이소열 단장은 무더위와 장마에 고생하는 공사현장 담당자들을 격려하며 공사현장의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청취했다.

이후 그는 "청렴윤리를 실천하고 부패유발 요인을 집중 점검해 깨끗한 공사현장을 만드는데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고 "때론 비윤리적인 행위로 안전까지 위협받기도 하는 만큼 인식개선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10월 1일까지 공모 진행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어린이들이 새만금에 대해 탐구하고, 상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6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보고 싶은 새만금 수변도시', '살고 싶은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19일~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미취학 어린이 포함)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접수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spectory.net/saemangeum/green)을 통한 온라인 참가접수 후, 우편접수 등을 병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대상 1명(교육부총리상,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3명(새만금개발청장상, 상금 각 50만원), 우수상 6명(전북도지사상, 상금 각 30만원) 등을 포함해 총 469점의 우수 작품을 선정, 10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전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진행하며,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새만금 방문인증 시 심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문인증 이벤트(행사)와 현장 방문을 지원하는 새만금 팸투어도 진행한다. /유호상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